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3/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2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무비스님 신금강경 강의(어플경전 강의01)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8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9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산스끄리뜨 원전으로 만나는 원형의 금강경	현지 역해	불광출판사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담마상가니(1)법의갈무리법집논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국보 탑비에 담긴 쌍계사 면면들 풀어내다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

일해 덕민 지음

반야샘/ 1만9800원

국보 진감선사탑비 내용 강의
쌍계사 창건주 혜소 공덕 담겨
덕민스님, 국내 최초 비문 완역
"창건주, 중창조 예불 포함돼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는 쌍계사 창건주 진감 혜소(慧昭) 선사의 덕을 기려 세운 탑비로 887년(진성여왕 1)에 세워졌다. 진감 혜소 선사의 속성은 최 씨로, 804년(애장왕 5)에 당나라로 가서 신감 대사 밑에서 승려가 됐고, 830년(흥덕왕 5)에 조계육조선사의 법맥을 잇고 신라로 돌아와, 신라의 다섯 임금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지금의 쌍계사인 옥천사에서 입적했다.

헌강왕은 885년에 혜소 스님에게 진감 선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진감선사대공영탑이라는 탑호를 내려 탑비를 세우도록 했다. 이 비석의 글은 왕명으로 최치원이 짓고 쓴 사산비명(四山碑銘) 가운데 하나로, 당대의 문장 연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가 불국사 학장을 역임한 일해 덕민 스님의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를 출간했다.

덕민 스님의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비 강의〉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전해졌던 비문의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불교사와 당시 신라시대 역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진감선사대공영탑비문은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에게도, 난해한 한문으로 전해져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덕민 스님은 이 어려운 비문을 원문과 함께 직역하고 평설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쌍계사 창건주 진감 혜소 선사의 공덕을 기리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의 모습.

덕민 스님은 강의를 통해 "쌍계사 개산조사인 삼법대비화상과 창건조사인 진감 선사와 함께 중창조사인 서산·벽암·백암·용담 선사와 고산 혜원 선사를 조석예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계사 중창주인 고산 혜원 선사는 1975년 삼신산 쌍계산문에 들어와 입적할 때까지 46년간 주석하면서 폐허에 가까웠던 쌍계사를 일신했고, 선사께서는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을 고산가풍으로 세우고, 쌍계사 창건 이념인 선, 교, 율, 차와 범패의 사상을 실천하며 한평생을 보냈다.

비문에는 왜 쌍계사가 선, 교, 율, 차와 범패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지를 알게 한다. 통일신라 723년(성덕왕 22)에 삼법(三法) 스님과 대비(大悲) 스님이 중국 선종의 6대조인 육조혜능조사의 정상을 모시고 설리갈화처(雪裏葛化處), 즉 눈 속에 칡꽃이 핀 곳에 정상을 봉안하여 선종대가람의 선풍을 개산했고, 828년에는 대렴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나무 씨를 가지고 와서 왕명으로 처음 지리산 쌍계사 화개 골짜기에 심게 했다. 쌍계사 화개곡에는 차나무 시배지가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곳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밭으로 인정해 1987년 8월 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로 지정했다.

이어 840년(문성왕 2)에 진감 혜소 선사가, 육조혜능조사의 선법을 잇고 귀국해 삼법, 대비 두 화상께서 육조혜능조사의 정상을 봉안한 곳에, 조사의 영당을 짓고 절을 크게 확장해 옥천사(玉泉寺)라 하여 창건했으며, 이곳에서 선, 교, 율, 차와 불교음악인 범패를 가르쳤다. 그리고 고산 혜원 선사가 쌍계사를 중창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게 덕민 스님의 주장이다.

덕민 스님의 강의는 쌍계사의 개산과 창건, 중창이 전해 내려오는 연기설화가 아니라 최치원이 지은 비문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이 쌍계사를 묘사한 표현도 눈길을 끈다. 최치원은 쌍계사를 묘사하면서 '호중별유천지(壺中別有天地)'라고 했다. 이것은 호로병 가운데 별천지가 쌍계사라는 것으로, 쌍계사가 별천지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쌍계사는 봄에는 꽃이 화려하고, 여름에는 우거진 소나무 소리에 울려 퍼지는 비파소리가 있고, 가을 골짜기에는 달이 휘영청 밝고, 겨울에는 산 정상에 눈이 쌓여있다고 했다. 따라서 별천지는 지리산 화개골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쌍계사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 최치원의 비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덕민 스님은?

저자 일해(一海) 덕민 스님은 1954년 범어사에서 우룡 종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8년 범어사에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수학을 했으며, 1967년에서 1969년까지 흥국학림에서 호경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하던 중, 1968년 청암사에서 우룡 스님께 전강을 받았다. 1970년부터 1986년까지 마지막 유학자 추연 선생 문하(태동고전연구원)에서 공부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현재, 기림사 성림금강학림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관음보살 자비 발현 서원하며…



관음경

송강 역주/ 도서출판 도반

2만5000원

불교TV와 불교방송 등에서 강의와 법문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송강 스님이 독송용 〈관음경〉을 출간했다.

송강 스님의 독송용 〈관음경〉은 기존에 사용되던 관음경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대인에게 알맞게 의역(意譯)해 운율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역(直譯)한 한글 번역문에는 용어 해설 각주를 달아서 의미 파악이 더욱 편하도록 했다. 한문 원문도 시중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독송할 수 있도록 함께 실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흔히 천수천안千手千眼이라고 표현하듯 천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자비를 펼친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관음경〉은 〈법화경(法華經)〉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별행경(別行經)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일찍부터 널리 유통됐다. 그런 까닭에 한국불자들이 〈반야심경〉과 〈금강경〉 못지않게 수지 독송하는 것이 〈관음경(觀音經)〉이다.

〈관음경〉의 앞부분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에 맞추어 33가지로 변신하면서 상대를 해탈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는 분명 우리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 즉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분신 혹은 화현으로부터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는 우리가 관음의 분신 또는 화현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저 못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 관음신앙이다. 송강 스님은 〈관음경〉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발원한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관음경(經)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名號)를 외면서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들어, 이윽고 해탈(解脫)의 참맛을 즐길 수 있길 발원해 봅니다."

신중일 기자

격의법 의거해 해설한 '금강경'



비움과 금강경

시현 역주 · 해설

사유수/ 2만원

불교의 중요 용어들은 기본적인 뜻은 같지만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혼돈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왜곡된 경전이해를 불러일으키고 궤변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격의법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격의(格義, Matching Concepts)는 격의불교에서 따온 개념으로, '격의불교'란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할 때 불교의 용어를 번역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 중국의 유교나 노장사상의 용어와 그 뜻을 차용한 불교를 말한다.

이 책은 불교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空) 사상의 변천을 살펴보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에 대한 개념의 변천을 알기 위해 불교 근본 경전에서 유일하게 공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간 부류'(맛지마 니까야) 제121번 '작은 비움 가닥'(小空經)과 제122번 '큰 비움 가닥'(大空經),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선택해서 공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격의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격의법과 그 격의법을 간과했을 때의 부작용에 주목하였으며 여러 가닥(經)들과 해설을 읽을 때 비로소 '비었음'의 일반적인 의미와 전문적인 의미에서 점차 차원이 깊어지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파악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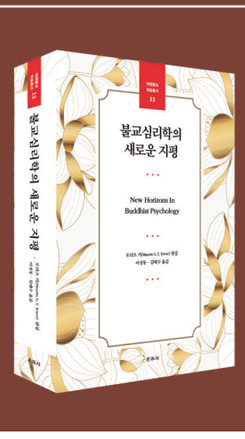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